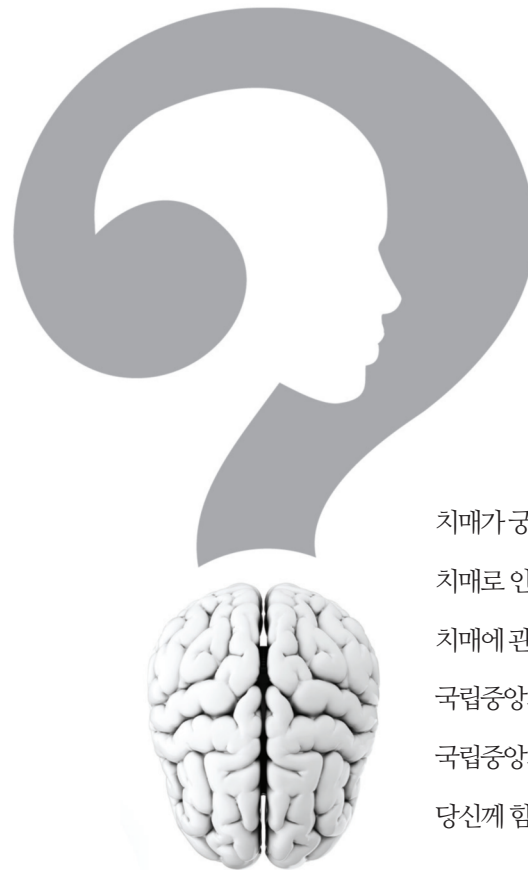




잊지 마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



치매가 궁금하세요?
치매로 인해 고통 받고 계세요?
치매에 관한 모든 것!
국립중앙치매센터와 상의하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가
당신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

비매품



9 788996 982609

ISBN 978-89-969826-0-9

저 자. 이정원 • 김기웅

발 행 처. 국립중앙치매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번지 유스페이스2
A동 308호, 1666-0921

디 자 인. 쏘울커뮤니케이션즈

Copyright © 2012 국립중앙치매센터

본 저작물은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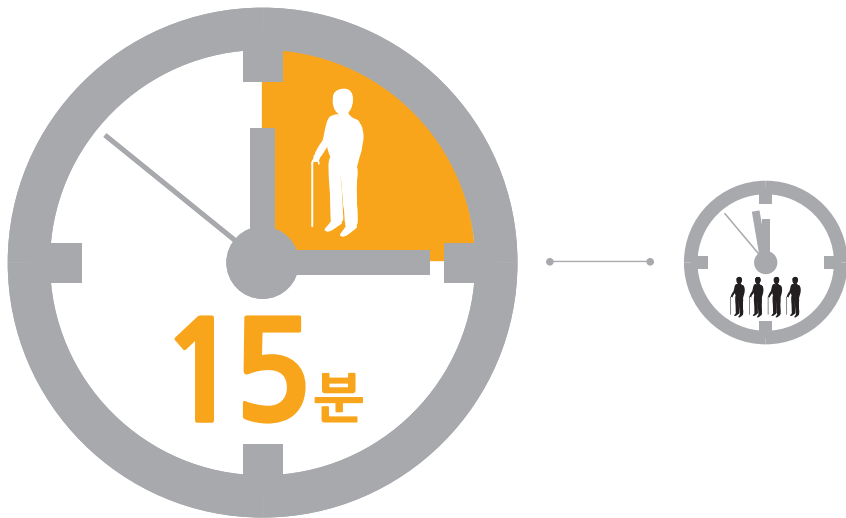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치매센터



우리나라에서는 15분마다 1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3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53만명 * 1만명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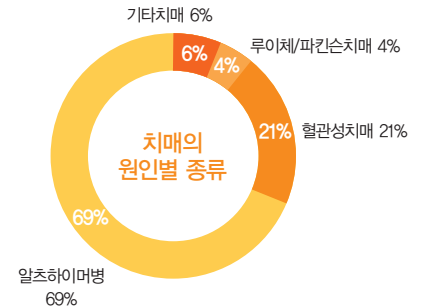
치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란?

기억, 언어, 판단 등 다양한 인지기능의 감퇴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워지는 모든 상황을 말하며, 100가지가 넘는 원인질환들이 있습니다.

젊은 치매가 늘고 있다!

치매는 흔히 노인에게만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노인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등 각종 원인질환에 따라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치매'라고 할 때 알츠하이머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노인성 치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런 유형의 치매가 젊은 연령층보다는 고령에서 훨씬 더 흔하고 고령화와 함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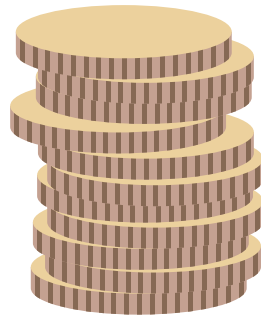
5가구 중 1가구가 치매가족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 20년마다 치매 환자는 두 배씩 증가하여 현재 53만 명에서 2030년(현재 50대가 70대가 되는 시점)에는 113만 명, 2050년(현재 30대가 70대가 되는 시점)에는 2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치매는 이제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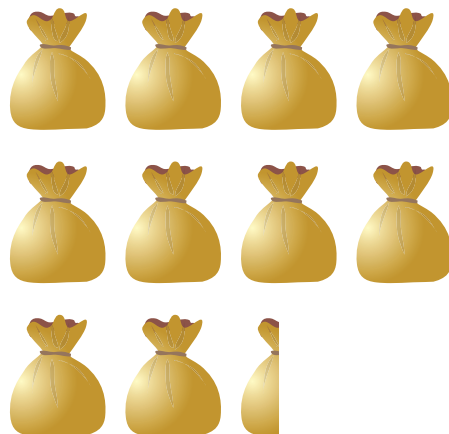
1,968만원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조호비는 약 1,968만원이고,
우리나라가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돈은
연간 10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10조 3천억 원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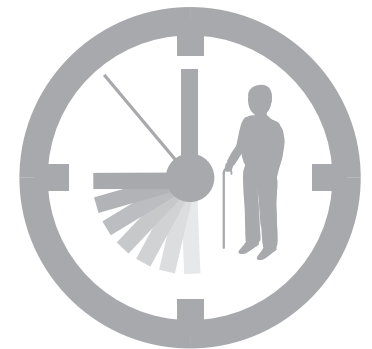
치매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까지 병들게 합니다.

치매 조호부담이란?

말 그대로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신체생리적,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치매 가족의 고통

치매 초기를 넘어서면, 당신의 가족들은
날마다 6~9시간 동안 당신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지키기 위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치매환자의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조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 지출 등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받게 됩니다.



치매 사회의 고통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 데는 연간 1,968만원이
들어서, 우리나라 5대 노인 질환 중 가장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치매 조호비용은
10조 3천억 원에 이르고, 10년 마다 2배 씩 늘어
30년 뒤에는 78조원을 넘게 됩니다.
이는 2013년 우리나라 총 예산의 6분의 1을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조 3천억 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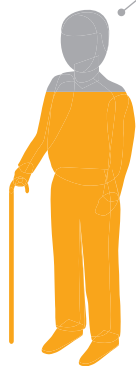


78조





치매의 발병이나 진행을 2년만 지연시키면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80%

잊지 마세요!

치매, 발견이 빠를수록 고통은 덜어집니다.

치매 조기검진프로그램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합니다.
만 60세 이상 우리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왜 받아야 하나요?

- 치매가 의심될 경우 거점병원에서 무료 정밀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견되면서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보건소 등록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잊지 마세요!

치매 치료, 시작이 빠를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거나 불치병으로 잘못 인식하여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이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 또는 단순 보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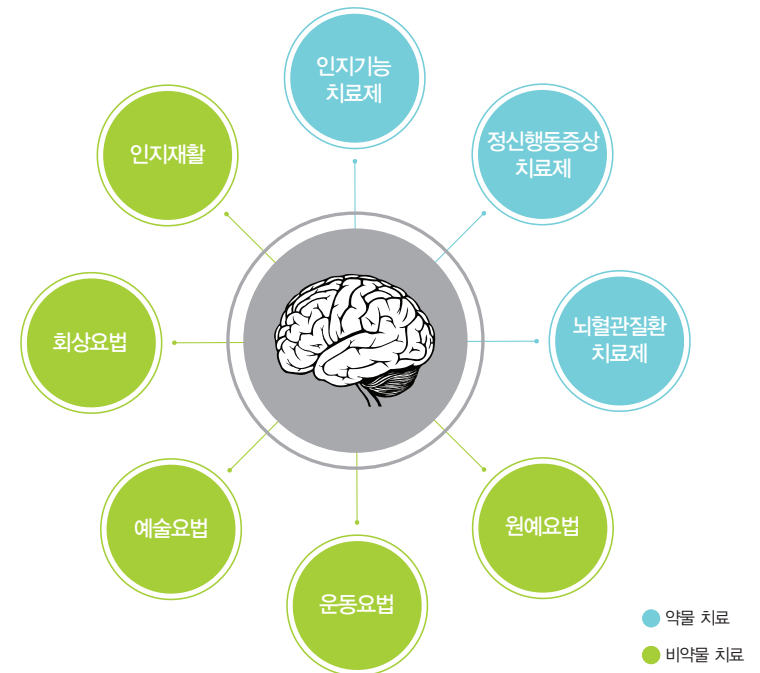
하지만 치매는 간단한 약물·비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의 출현이나 악화를 현저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첫 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2년 반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 약물치료를 하면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되고
요양비용은
연간 약 5,000억 원이 절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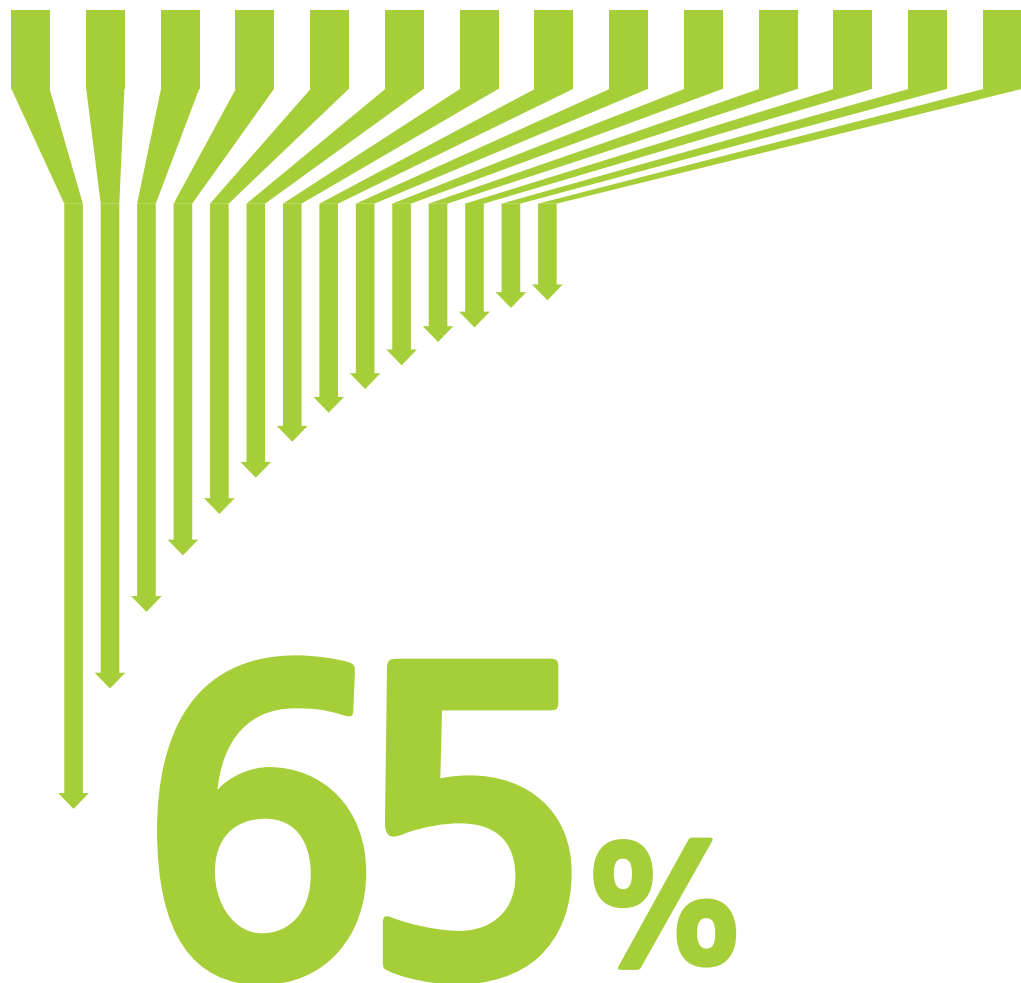
55%

5174억 원





젊었을 때 매일 양치질만 꾸준히 해도 치매 발병 확률이 65% 감소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연구팀의 발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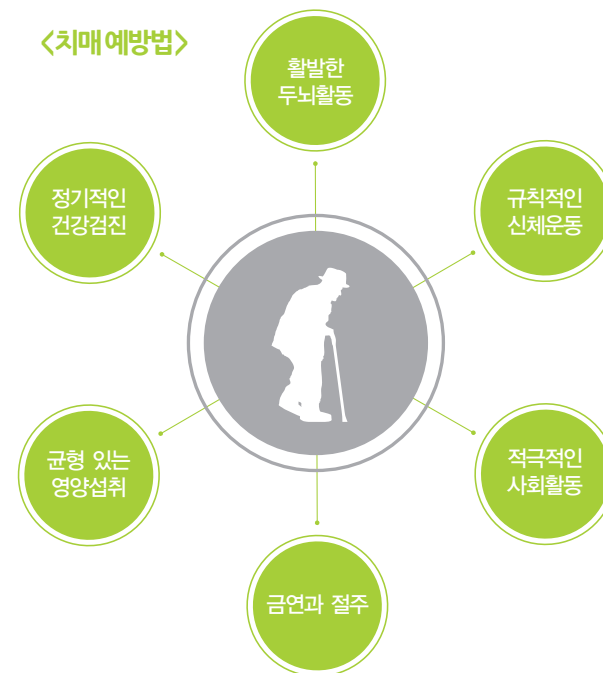
잊지 마세요!

치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치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치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방 접종과 같은 확실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우울, 대사성 혹은 혈관성 질환, 뇌손상과 같은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나간다면
치매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법>



0921

SEPTEMBE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부는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제정, 치매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치매관리법, 치매 없는 건강사회를 위한 출발입니다.

치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서비스, 교육, 연구의 기획과 보급을 위해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2012년 2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치매를 관리하는 것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질환은 암에 이어 치매가 두 번째입니다.

치매관리법은 50만 치매 환자와 200만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2012년 5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1666-0921

국립중앙치매센터 안내전화

잊지 마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하는 일>

인프라

- 치매상담센터 내실화
- 치매조기검진사업 내실화
- 치매 관련 시설 질 관리
- 치매관리역량의 지역균형 발전
- 치매집중관리병동 활성화
- 치매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
- 보험 급여 체계 개선

협력

- 민관 협력 확대
- 국제 공조 강화

교육

- 치매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교육
- 치매 전문 인력 교육
-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운영
- 치매관련 학술대회 개최

연구

- 전국 치매 실태 조사 정착
-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강화
- 비약물 치료 · 조호기술 연구 강화
- 인문사회적 연구 활성화
- 치매 연구 관리역량 강화

조호

- 치매 조호 코디네이터 양성
- 통합 상담콜 서비스
- 위기 관리 서비스
- 중증 치매 조호 지원
- 초로기 치매 조호 지원
- 단기위탁지원 강화
- 치매 환자 권익 보호